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4월 20일 (제 1302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겔 럼

눈물의 기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세 번 울어대니(눅22:60), 베드로는 자신의 배신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눅22:62).

그 통곡의 눈물은 그를 새롭게 부활시켰고, 그 후 그는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다. 베드로의 통곡이 그의 신앙을 부활시킨 것이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그는 용한 의사를 부르지 않고 면벽한 채 하나님 앞에서 영영 울어댔다. 학처럼, 비둘기처럼.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다시 삶을 열어주셨다.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이처럼 눈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늘 계신다.

봄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대지에서 새 생명이 싹튼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 죽은 듯한 나무에서 새싹이 움트며, 꽃들이 만발한다. 통곡의 기도는 봄비가 대지를 소생시키듯 죽어가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부활의 원동력이 된다.

우리 삶이 메말라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은 것은 눈물이 없어서다. 심령이 메말라서다. 가문 땅을 보라. 짝짝 갈라져 있지 않은가.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을까. 그러나 사막에도 물만 있으면 꽃을 피우고, 유실수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법, 울어라, 방성대곡하라, 애통하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삶을 부활시켜주실 것이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이는 열쇠이니까. 우는 아이에게 젖 물리는 게 어머니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5:4).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자! 한나처럼 단혔던 것이 열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죽은 것이 살아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126:5),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시34:18).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성도들의 기도를 타고 멕시코(Mexico) 몬테레이(Monterrey) 공항에 도착하니 이 선교사와 라구나(Laguna) 목사, 엑토르(Héctor) 선교사, 로헬리오(Rojelio) 목사 부자 등 반가운 얼굴들이 맞이해주었다.

바로 살띠요(Salttillo)로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엑토르 선교사가 몬테레이 주지사와의 면담을 약속해놓았는데 까를로스(Carlos) 목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라 끝탕을 하고 있었다. 목사님은 사랑하시는 엑토르도 살려야 하고, 내년 몬테레이 집회에 북중미 월드컵으로 신축되는 축구경기장을 집회장소로 사용할 수 있을지 타진하는 차원에서 만나기로 하시고 까를로스 목사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런데 막상 주지사 공관에 도착하니 비서라는 자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

는다. 결국 더 넓은 회의실로 옮겨 모두 들어오게 한 후, 목사님은 잠깐 기도해주신 후 청사를 나오셨다.

“내가 한국에서 꿈이 안 좋다고 했었는데, 꿈 땀을 한 거 같다. 그리고 회개했다. 집회가 우선인데, 인간적인 생각에 만나러 왔더니 이런 사단이 난 거다. 만일 집회를 배설한 까를로스 목사가 이 일로 시험에 들면 이번 집회는 망하는 거다. 엑토르도 깨달아야 한다. 일을 진행할 때는 항상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종이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지 권력자, 재력가 앞에서 주눅 들어서는 안 되겠는가?”

결과적으로 월드컵경기장 사용을 승인받고, 엑토르와 까를로스 목사 모두를 살린 후, 우리는 어둠이 내리는 살띠요, 까를로

“나에게는 수천 명이 모여드는 집회보다 목회자 여러분을 가르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한 명이 변하면 교회가, 나라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목회자 및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교회를, 나라를 변화시킨다면 그 이상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까를로스 목사가 그 샘플 아닙니까? 그의 사역은 국가도 하지 못하는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마약과 매춘, 각종 범죄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의 사역이야말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단히 배우고 노력하며,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요,



2025 멕시코 살띠요 집회 광경

는 것이다. 비서는 무례하게도 로헬리오 목사, 까를로스 목사, 심지어 우리 일행 일부도 나가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슨 비밀스러운 상담이 있나 하고 참으시던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 돌아가자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나를 부른 거 아니냐? 그런데 비서라는 자가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는가? 나는 살띠요 집회를 위해 온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지사를 만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돌아가자!”

불같이 화를 내시자 엑토르 선교사는 안절부절 못하고, 만남을 주선한 듯한 종교담당 관리는 거듭 사죄하며 목사님을 불

스 목사의 사역지에 도착했다. 많은 원생들이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환영해주었고, 까를로스 목사로부터 자세한 안내를 받았다. 21년 새 경쟁자 수는 120명에서 1,200명으로 열 배 증가해있었고, 그의 교회도 5천 명의 교인으로 크게 성장해 있었다.(관련기사 4면)

살띠요 집회는 까를로스 목사가 시무하는 Cristo Vive교회에서 오전 10시에는 목회자 세미나, 저녁 8시에는 집회로 진행되었다. 목사님은 이틀간의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 강력히 가르치셨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 종의 길을 선택하였기에 성도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식해서야 되겠습니까? 배움의 끝은 실천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부단히 배우고 노력하세요.”

저녁 집회, 해발 1,670m인 도시 환경 탓에 목사님은 첫날 어지럼 증세로 오래 안수하시지 못하고 집회를 마치셔야 했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소경, 귀머거리, 병어리가 고침 받는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었다.(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목사**



귀머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멕시코 살띠요 목회자 세미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1:1~17)

고난주간에 하신 예수님의 유연적 설교

과로로 인해 몸이 안 좋아 기도원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내가 떠나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갈까?'라는 생각이 뇌를 스쳤습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길 말은 단 하나,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잘 뒹굴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니 이 세상을 사는데 족할 뿐 아니라 천국까지 무사히 안착하여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기도원 벽에 새겼지요. 제가 없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꼭 이것만은 지켰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저는 제가 없는 세상을 가정하여 유연적 문구를 만들었음에도 굳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죽은 날을 받아놓고, 죽을 장소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유연적 설교를 하셨을까요? 성경 여러 곳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민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부끄럽다'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이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하나님의 뜻을 받잡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에게 앞으로 당할 고초나 육신적 고통은 염두에 없었습니다. 다만 남겨두고 가는 당신의 제자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더욱 민망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땀이 생긴다

그 민망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유연적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외식하지 말라', 둘째는 '종말을 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라', 셋째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앞의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외식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 머무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성전은 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환전소였고, 제물을 파는 장사터였습니다. 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이를 '멀리서 오는 백성을 위한 것'이라며 묵인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거기서 이익까지 챙기고 있으니 예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어쫓고 회회를 정화하셨습니다. 사실 종교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에 대해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다만 때가 아닌지라 꼭 참고 잘 표출하지 않으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맹렬히 질타하

다.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는 '회개하지 않으면 불행과 심판이 닥친다'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종교지도자들 비롯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죄는 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식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가면을 쓴 것처럼 겉모습은 경건하나 속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위선으로 가득 찬 거죠.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마23:5). 그들은 기도도 거리와 큰 거리에 서 했고(마6:5), 의와 인과 신이 없는 형

식적인 십일조를 드리는 등(마23:23) 사랑 앞에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드러나는 법(딤후5:24~25).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마23:27~28). 그런데 이 말씀이 어찌 종교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었습니까? 지금도 외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될까 염려하시어 구제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히 하고(마6:3~4),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마6:6), 금식도 표나지 않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마6:16).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순간, 거짓과 위선을 떨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까마득한 후배인 바울에게 질책당한 일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

고 했는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몇몇 유대인들이 오자 식사를 과하며 마치 유대 율법을 지킨 듯이 행동한 것입니다. 바나바마저도 그런 외식에 휘둘렸으니 바울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갈2:11~13).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 그 돈의 일부를 숨기고 전부인 것처럼 베드로에게 가져왔다가 내외가 죽임을 당한 것도(행5),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으니 이것을 본 가롯 유다가 '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고 역정을 낸 것도 다

사람을 의식한 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분명하면 사람 앞에서건, 하나님 앞에서건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유연적 설교 두 번째는 종말을 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5가지 비유로 종말을 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보고 시기를 분간하고, 충성된 종처럼 늘 깨어 예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넉넉히 준비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복지부동하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이익을 남기고, 지극히 작은 일도 베풀고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이 5가지 비유 말씀의 공통분모는 '깨어서 넉넉히 준비하라'입니다. 대강, 적당히 준비하는 것은 준비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가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재림한

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직장도, 가정도 폐하며 모든 것을 교회에 바치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날 오신다고 확신했기에 넉넉히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다 바칠 정도였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대충 준비하는 것은 언제 오실지 막연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해석해봤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예수님 재림의 날이라고요. 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바울도, 베드로도 이미 주님을 만났잖아요. 꼭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을 보지 못해도 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그날이 곧 종말이요, 재림의 날이지요. 문제는 내가 죽는 날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 있는 지금 깨어서 철저히, 넉넉히 재림의 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명심할 것은 세상에서 이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신앙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밝은 빛이다

여러분, 모세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신30:19~20)고 유언을 남겼고, 여호수아도, 다윗도, 솔로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가 섰던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8)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의 공통점은 남은 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유연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청개구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염마의 유언만은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유언대로 살아봅시다. 장담컨대 그날 예수님이 '잘했다' 하고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전15:58).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기독교 상식 - 부활절 편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 되면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지곤 해요.

Q1. 부활절은 왜 해마다 날짜가 바뀌죠?

로마를 중심으로 동유럽에 분포되어 있던 ‘동방교회’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부활절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랐어요. ‘동방교회’는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을 그대로 따랐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음력 1월 14일인 유월절을 양력으로 계산할 때 매년 날짜가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서방교회’는 부활절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주일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이어야 된다고 주장했죠. 이러한 논란은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리되었어요. 양측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어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춘분 다음에 오는 보름 후 첫 주일’로 결정한 것이죠.

Q2. 부활주일에 관련된 용어는요?

1) 종려주일 :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예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었죠.

2) 유월절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첫 아이(가축도 포함)들의 죽

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지나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3) 고난주간 :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한 주간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4) 사순절 : 부활절 전까지 여섯 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Q3. 부활주일엔 왜 달걀을 나눠주나요?

알은 곧 생명 탄생의 의미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기독교인들은 달걀을 기독교 부활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따라서 달걀을 나누며 부활을 대망하는 신앙으로 꺾박과 고난을 극복하자고 서로 격려했던 겁니다. 더구나 중세가 되자 사순절과 고난기간 중에 경건 생활이 강조되면서 육식을 금하는 등, 엄격한 금욕 활동을 요구받게 됩니다. 따라서 먹는 것조차 금지되었던 달걀을 저장했다가 부활절을 맞아 이를 장식하여 선물로 나눠주는 문화가 더욱 퍼지게 되었다고도 해요.

보통 음식에 열을 가하면 물러지는 데 반해, 달걀은 삶을수록 단단해지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고난을 받을수록 단단해지자’는 의미로 삶은 달걀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현명 목사

:: 성경에세이 ::

영적 계몽운동

여보게!

예부터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강했네. 무슨 일을 해도 먼저 돼지머리에 절하는 고사를 지냈고,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정안수를 떠놓고 나무 아래서 빌었다네. 마을마다 성황당이 있어 거기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지.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달라졌는가? 아니라네. 여전히 우상이 판을 치고 있네. 텔레비전에도 무속인이 판을 치고, 대학가에 타로 점치는 곳이 부지기수라네. 아침에 일어나 화투로 하루 운세를 점치는 자들도 많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일년 운세를 보러 점집에 간다더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점집을 찾아가고, 인터넷으로 부적도 거래된다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결국은 멸망 외에 없다는 거야. 왜냐?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셔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삼사대까지 저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네. 아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녀는 하란을 떠날 때 드라빔이라고 하는 조그만 우상을 훔쳐서 숨겨 가지고 왔다네. 어떤 이들은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일찍 죽은 것은 우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대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없거든.

여보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우상을 섬기면 망한대네. 그러므로 이제라도 영적 계몽운동이 일어나야 하네. 성령운동이지. 자고로 미지근할 때 군이 생기고, 전염되는 법, 군을 없애는 방법은 뜨거운 불 뿐이기에 그렇다네. 성령운동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구국운동이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성령에 의한 영적 각성운동이었듯이, 2025년 대한민국에 영적 계몽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네.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 나라가 잘 되고, 내가 잘 된다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삼상7:3).

부활절에 진정 신앙의 부활이 이뤄지기를 소망하네.

봉우

:: 오늘의 메시지 ::

부활의 예수님

1982년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은 책을 쓰기 위하여 취재를 시작하였다. 그가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고 있으며, 그들이 전하는 증거도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았다. 그래서 복음서와 외경들을 통해 예수의 행적을 연구하며 부활의 사건이 허구임을 증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작 연구를 마친 그는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출간한 책에서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증명하며 신앙적 확신을 고백하게 되었다. 그 책이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이다.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느라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온 인류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자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김상욱 목사



:: 생명의 말씀 ::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서!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3:13~14).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같이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4~15) 하셨기 때문이다. 자신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다(마18장).

그런데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죄책감이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불신이다. 죄책감은 절대 회개가 아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롯 유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 만일 베드로도 죄책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면 그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죄책감이 아니라 잘못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용서는 사랑의 위대한 표현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산물이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지나간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자기 죄책감을 떨치는 것이다. 용서는 삶을 아름답게 한다. 이 용서의 향기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된다. 우리 마음 깊이 남아 있는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용서하시라. 이 위대한 용서의 삶으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한다.

임택함 목사

::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 ::

:: 귀를 기울이세요 ::

목사님의 모든 걸 주고 가세요



지난 2004년, 우리는 멕시코(Mexico) 베라크루스(Veracruz)와 쾄띠요(Salttillo)라는 두 도시에서 연속으로 전도집회를 진행했었다.

집회 두 번째 도시였던 쾄띠요 방문은 심신이 모두 지친 상태에서 정말 힘겨울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까를로스(Carlos) 목사로 인하여 새 힘이 솟는 느낌이었다. 그는 당시 마약과 매춘에 물들어 방황하는 젊은이들 약 120명을 돌보며 복음으로 갱생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이 마약에 물들어가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기도로 시작한 사역이라는데, 매일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나아가 신학까지 가르치려니 많은 재원도 필요하고 국가나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고백했다. 빵을 구워 팔거나 양계장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 그는 지난해 몬테레이(Monterrey) 집회 때 제자들을 이끌고 집회에 참석하며 이번 쾄띠요 집회를 요청했다. 6개월 만에 다시 보는 것이긴 하지만, 쾄띠요는 21년 만에 이뤄지는 방문인지라 사실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하고 있을까 많이 궁금했다. 집회 전 그의 사역지를 방문하였는데, 진실로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다. 돌보는 갱생자들의 수가 현재는 무려 1,200명이라고 한다. 마약, 매춘 범죄 이력자를 넘어 거기에 날로 증가하는 미혼모들과 아이들까지 돌보고 있었다. 단지 갱생원의 규모를 넘어 완전히 큰 규모의 타운을 형성한 셈이었다. 숙소와 식당, 부식 창고, 각종 기술을 도제식으로 가르치는 현장 실습실, 운동시설 등, 엄청난 규모였다. 매일 1,200명에게 하루 세끼를 제공한다는 것부터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까를로스 목사의 안내를 받으며 현장을 모두 돌아보셨는데, 충격과 감동의 표정이 역력하셨다.

“아! 정말 보람을 느낀다. 20여 년 전에 이곳에 와서 기도해주며 복음을 전하고 갔었는데, 그토록 나를 닮길 원하던 까를로스 목사가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

는 실상을 보니 너무도 감사하고 보람에 보람을 느낀다. 이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이고 국가도 못하는 일이다. 부식 창고를 돌아보며 내가 꼭 물어본 말이 있다. ‘기도하니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때마다 까를로스 목사는 ‘아멘, 아멘’을 연발했다. 나 역시 기도원에서 철마다 3천여 명을 무료로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을지 한눈에 보인다. 나의 목회 40년 동안 지나온 여정이란 눈물과 기도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까를로스 목사가 어떻게 해왔을지 나는 아주 잘 알 수 있다. 먹이는 일뿐이었겠는가? 어린 청소년들이 많고 더군다나 범죄 소굴에 있던 아이들이니 그들을 복음으로 갱생시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자신의 삶이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사역임을 누구보다 나는 잘 안다. 정말 고맙고 내가 도전을 받는다. 우크라이나(Ukraine) 전쟁이 끝나면 들어가 교회를 재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까를로스 목사의 사역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했을 것이고, 노인, 여성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을 것이다. 그들을 돌보는 사업을 전개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이생뿐이라면 정말 불쌍하겠지만, 우리는 그날에 받을 상급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의 사명으로 알고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까를로스 목사를 도와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이나 그에게 교육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까를로스 목사를 도와 일하는 것은 까를로스 목사와 같은 상을 받는 길이다. 반드시 제2, 제3의 까를로스 목사가 이곳에서 나와 이 사역을 계속 부흥, 발전시켜야 한다.”고 격려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감동시킨 사건은 까를로스 목사의 사위들을 소개받은 때였다. 큰 사위 다니엘(Daniel)이나 둘째 사위 펠빈(Melvin) 모두 마약에 찌들어있던 젊은이였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마약과 범죄에 빠져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가 멕시코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까를로스 목사가 운영하는 갱생시설에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변화되어 새 삶을 찾고 이제는 까를로스 목사를 도와 설교자가 되었다고 한다. 까를로스 목사는 그런 그를 사위로 삼은 것이다. 마약과 갱

단의 전과자를 갱생시켜 자신의 사위로 삼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그가 얼마나 이 사역에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하나님은 맡기신 이 갱생 사역에 자신의 전 삶을 올인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까를로스 목사는 이번 집회를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24시간 릴레이 기도로 준비했다고 한다. 늘 목사님을 롤모델로 삼고 목사님의 영상을 보며 닮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목사님을 직접 자신의 차로 모시면서 만날 때마다 손을 목사님의 가슴에 대고는, “목사님의 믿음과 능력과 지혜, 그리고 목사님 가슴 속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모든 걸 저에게 주고 가세요.”라고 말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서 그의 사모는 한술 더 떠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역을 함에 있어 사모의 전폭적인 조력이 없이는 어찌 가능했겠는가. 온 가족이 매달리지 않고는 수행할 수 없었을 그의 사역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다.

하나님은 30년 가까이 섬겨온 당신의 종에게 이제 좋은 사위도 주시고, 각계 각지로부터 도움의 손길도 풍성히 채워주셔서 이제는 부족함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다.

지난 2004년 방문 당시 600명의 교인들을 이끌고 있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현재 5천 명의 교회로 성장해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눈물의 기도, 까를로스 목사의 사역은 오늘의 결과로, 열매로 모든 것이 증명되고 있었다. 그의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실상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희생, 사랑, 용서 등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실천하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이번 집회를 통해 ‘배움의 끝은 실천’임을 계속 강조하셨다. 목사님이 설교와 안수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시면, 단에 끝까지 남아 목사님께 배운 대로 성도들 모두를 일일이 기도하고 안수해주는 그의 모습에서 그의 말이 단지 말치레가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었다. 그에게서 지구촌 어느 한 구석 어딘가에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발견하는 깊은 감동이었다. 까를로스 목사와 지금까지 함께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한은택 목사

빈 무덤 옆의 작은 소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독일의 작은 마을, 이곳에서는 미국에서 파견된 구호단체 선교사들이 전쟁고아들을 위하여 부활절 예배와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한 전쟁 아 소년도 이 행사에 참석했다. 소년은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손에는 늘 낡은 인형을 들고 있었으며, 선교사들의 이런저런 대화에도 웃음기조차 없었다. 선교사들은 이 자리에 모인 아이들에게 부활절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주제로 종이 상자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 돌과 천 조각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형상화한 종이 인형과 함께 ‘무덤은 비어 있다’라는 말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만들었다. 다른 아이들은 장난을 하며 시끄럽게 작업할 때, 이 소년은 혼자 조용히 집중해서 작업을 시작했다.

마침내 모든 작업을 마치고 선생님이 아이들이 작업한 것을 검사하기 시작했을 때, 조용한 소년의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그 안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천도 없었고, 예수님을 형상화한 종이인형도 없었고, 꾸밈도 없었다. 선생님은 당황해서 아이에게 질문했다. “왜 아무것도 넣지 않았니?” 소년은 작게 대답했다. “무덤은 비어 있어야 하니까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날, 선교사들은 아이의 말을 듣고 모두 눈물을 흘렸고, 그 소년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이 소년을 통해서 부활이란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믿고 실천하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총회장 목사님은 예수님이 삶에 들어오시면 삶이 부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로 인하여 죽은 나라가 살아나고, 죽었던 기업이 회복되고,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이 아닌 다시 사진 부활의 주를 믿고 있다. 그러니 삶의 모든 순간들에서 부활이 선포되고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

송현해 생도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춘계 산상집회

날짜: 4월 28일(월) ~5월 1일(목)
장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호텔예약: 4월 22일(화) 오전 10시, 교회 홈페이지(www.jcc.tv)
문의: 02.533.9191